9위에 머물고 KIA에게는 승부의 추를 기울일 수 있는 '영양가 만점'의 한 방이 필요하다. 올 시즌 KIA에서 터진 11개의 홈런 중 김주형(오른쪽)과 필(왼쪽)이 기록한 투런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솔로포였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홈으로 多 돌아오라

KIA, 삼성전 공격력 강화 위해 엔트리 교체

평균 득점 4.46점 9위…11개 홈런 중 솔로포만 9개

나지완·서동욱·신종길 콜업…오준혁·이홍구 2군행

지크-윤성환 맞대결…팀 1만9천 득점 달성도 볼거리

부족한 득점을 위해 '호랑이 군단'이 엔트리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19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홈 3연전을 갖은 뒤 주말 사직으로 건너가 롯데 자인어츠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엔트리에 변동이 있다.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베테랑 김민우를 필두로 내야수 고영우, 외야수 오준혁, 포수 이홍구가 2군에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됐다. 대신 수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짐을 쌌던 나지완이 10일을 채워 복귀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서동욱도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부상으로 시즌 준비가 늦어졌던 외야수 신종길과 내야수 강한울도 콜업된다. 부족했던 공격을 채우기 위한 엔트리 변동이다.

지난주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와를 만났던 KIA는 우천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하고 2승3패의 전적을 남기며 이번에도 적자 살림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타선의 힘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득점이 부족하다. 윤석민이 완투패를 기록한 17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KIA는 장단 11안타를 뽑아냈다. 그러나 홈에 들어온 선수는 단 한 명. 대타로 나온 김다원이 홈런을 치고 자력으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루상에서 주자들이 사라졌다.

타율 0.276(7위), 장타율 0.422(4위), 출루율 0.266(6위), 득점권 타율 0.290(5위) 등 9위라는 팀 순위에 비하면 KIA의 공격수치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19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두산	9	3	1	0.750	-
2	SK	9	5	0	0.643	1
3	LG	7	5	0	0.583	2
4	넥센	7	6	1	0.538	2.5
5	롯데	7	7	0	0.500	3
5	kt	7	7	0	0.500	3
7	삼성	6	7	0	0.462	3.5
7	NC	6	7	0	0.462	3.5
9	KIA	5	7	0	0.417	4
10	한화	2	11	0	0.154	7.5

그러나 평균득점이 4.46점으로 최하위 한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당 하나 꼴로 병살타(12개·3위)가 나왔고 희생플라이로 홈으로 불러들인 주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의 한 방도 아쉽다.

12경기에서 11개의 홈런이 나왔지만 대부분이 솔로포였다. 9개의 홈런이 솔로포, 투런은 2개가 기록됐다. 한방이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기울이기에는 역부족인 솔로포들이었다.

나가기는 하지만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주자들. 득점권 상황에서의 파괴적인 공세, 주루,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 공격 자원에 변화를 준 KIA는 지크를 앞세워 새로운 한 주를 맞는다.

3연패의 지크에게 승리가 간절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앞선 등판에서 '괴물' 김광현(SK)과 힘겨루기를 해야 했던 지크는 이번에는 '호랑이 사냥꾼' 윤성환(삼성)과 마운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지크의 힘과 윤성환의 컨트롤이 맞붙게 된 첫 경기, 타석의 새로운 자원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한편 KIA는 이번 주 역대 두 번째 팀 1만9000득점에 도전한다. 앞으로 12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 1만9000득점이 채워진다.

최영필의 500경기 출장 기록도 임박했다. 두 차례 더 마운드에 오르면 통산 33번째 500경기 출장 투수가 된다. 사이클링 히트의 사나이 김주찬은 500타점에 8개를 남겨두고 있다.

타자들은 윤성환의 기록 달성을 늦춰야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윤성환이 앞으로 8.2이닝을 소화하면 1300이닝 투구를 기록하게 된다. 1000탈삼진에도 11개만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년 러브투게더 데이 행사.

오늘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

지난 시즌 적립금 2억6천만원 전달…나눔 실천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열고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러브 투게더 유니폼'을 입고 뛴다. 이날 KIA와 기아자동차는 2016 시즌 제 1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갖는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시즌 종료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KIA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시즌 적립금 2억6000만원을 (사)그린라이트와 광주아동복지협회에 전달한다.

또 광주아동복지협회 어린이 등 50여 명에게 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러브투게더가 후원하는 야구동아리의 채찬우 군이 시구를 맡는다. 시타는 지난해 러브투게더 우수 기부자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시설관리팀 한승철 기사가 한다.

KIA는 앞으로도 러브투게더 지원을 받는 야구 유망주를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유소년 야구단 지원과 문화나눔 활동은 물론 몽골 야구동아리 어린이 지원까지 국내외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18개월만에 복귀전

25일부터 광주 남부대서 동아수영대회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이 사실상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18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나서 물살을 가른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팀 GMP는 18일 "박태환이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참가하기로 한 제88회 동아수영대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오는 8월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를 겸해 치러진다.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100m·200m·400m·1,500m 등 네 종목에 참가신청서를 냈다. 박태환이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4년 11월 초 제주에서 끝난 전국체육대회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지난달부터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해온 박태환은 이 대회 참가를 위해 21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비록 대한체육회 규정 탓에 리우 올림픽 출전 길이 막혀 선수 생명을 이어갈 지도 불투명했지만 박태환은 일단 다시 출발대 위에 서기로 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채취한 소변샘플에서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 끝에 고의 투약 의혹은 벗었고, FINA 징계도 지난 3월 2일로 끝났다.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해 명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표선발전을 준비해왔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체육회 규정이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있었고, 체육회가 개정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뒤에는 절차상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태환은 그동안 올림픽 출전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박태환의 공식 복귀전은 25일 열릴 남자 일반부 자유형 1,500m 경기가 될 전망이다. 이어 26일 자유형 200m, 27일 자유형 400m, 28일 자유형 100m에 차례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전남도민체전 22일부터 '땅끝' 열전

해남군서 22개 시·군 6700명 참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주말 개최

전남 지역민들의 체육제전인 전남도 체육대회가 오는 22일부터 해남군 일대에서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특히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일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탈피해 주말 대회를 개최하는 전략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제 55회 전남도 체육대회'가 오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땅끝 해남에서 세계로 뻗는 전남!'을 주제로 해남군 우슬경기장 등 26개 경기장 일대에서 치러진다. 해남에서 전남체전이 치러진 것은 지난 2005년(44회)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6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육상·축구·농구 등 21개 정식종목과 당구 등 1개 시범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사격의 경우 나주 전남도 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체육회와 해남군은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다, 체육단체 통합 이후 열리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체육인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치르겠다는 각오다.

대회 기간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취지로 역대 대회 중 처음으로 '성화 해상 봉송'을 추진하는 한편, 북평용줄다리기,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식전행사도 마련된다.

눈에 띄는 이색선수도 많아 완도군 소속으로 이의종(48)·임미향(여·45) 부부와 딸 이다정(22) 등 3가족이 볼링 종목에 함께 출전하는 것을 비롯, 형제·자매·쌍둥이 등 가족선수도 많다.

한편, 도체육회는 대회 기간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 과학적 체력관리 시스템과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철신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체육단체 통합 이후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체육인들의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일본 투수 ML서 맞대결

뉴욕 양키스 다나카, 시애틀 이와쿠마에 판정승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일본인 선수끼리 12번째 선발 맞대결을 펼쳤다.

주인공은 다나카 마사히로(28·뉴욕 양키스)와 이와쿠마 히사시(35·시애틀 매리너스)다. 둘의 맞대결은 18일 미국 뉴욕주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양키스와 시애틀전에서 벌어졌다. 결과는 다나카의 승리다.

이날 다나카는 7이닝 동안 안타 6개를 맞고 삼진 6개를 곁들여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고, 가장 많은 93개의 공을 던져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다나카는 1회 안타 2개와 내야 땅볼로 먼저 1점을 내줬지만, 팀 타선이 5회까지 4점을 얻었다. 4회에는 수비 실책 속에 1점을 허용했고, 5회에는 아오키 노리치카에게 3루타를 맞고 1점을 더 내줬지만 4-3 리드를 지킨 채 7회까지 책임졌다.

이와쿠마 역시 7이닝을 던져 8피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4실점으로 선발투수로 제 몫을 했다. 올 시즌 최다이닝과 최다투구(102구)를 기록했지만, 한 점 뒤져 시즌 2패째를 당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역사적인 대결에서 다나카가 이와쿠마에 이겼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끼리 선발 맞대결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